전남도-CJ푸드빌, 완도전복 활용 외식메뉴 첫 출시

전남수산물 판매촉진 프로젝트
리조또·파스타 등 총 3종 세트
빕스·제일제면소도 신메뉴 추가

전남도가 식품 대기업과 함께 지역 대표적 특산물인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외식 메뉴를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는 우수한 전남 수산물 판매촉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손잡은 CJ푸드빌이 완도산 전복을 활용한 전복 리조또,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 등 신메뉴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안 비스트로 '더플레이스'를 통해 선보이는 신메뉴는 지난달 22일 전남도, 완도군과 CJ푸드빌이 '전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외식상품 개발·홍보' 업무협약을 한데 따른 것으로 최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어가를 돕고자 추진한 첫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번에 출시된 더플레이스 3종 메뉴는 전복살과 전복소스로 감칠맛을 살린 '전복 리조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전복 씨푸드 샐러드', 바질 페스토의 풍미가 어우러진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다.

한식에 사용되는 전복을 이탈리안 메뉴에 접목해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독창적인 맛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시된 메뉴는 두 가지 세트 메뉴로 구성해 25% 할인가로 판매되고, 신메뉴 출시이벤트로 더플레이스 카카오톡플러스 채널에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7월에는 '빕스', '제일제면소'에서 전복을 활용한 스테이크, 면요리 메뉴도 출시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빕스'가 만든 전복 스테이크, 파스타를 더욱 쉽게 맛보는 레스토랑 간편식(RMR) 제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복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출시는 최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전복 양식 어가의 판로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전남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외식 메뉴와 간편식 개발 등 소비 확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한쿡, 뚜레쥬르 등 국내 최대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세계적 외식문화 기업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주민 제안 '광주문제', 민·관·공·학 함께 해결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가동

기후위기·지역공동체 등 주민이 제안한 지역문제에 대해 시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이 힘을 합쳐 해결한다.

광주시는 27일 '2023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등 시민 체감이 높은 지역사회 공동의제를 선정하고, 함께 실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정책위원장인 강기정 시장이 주재했다. 행정·의회·공공기관·시민단체·대학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지자체·공공기관·대학·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2019년 39개 기관의 참여로 시작했다. 이날 광주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송원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테크노파크·광주시 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8개 신규기관이 협약을 맺어 총 77개 추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부터 지역문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의제제안, 사회적가치 연결의 날(매칭데이) 등을 통해 90여개의 의제를 발굴했다. 이중 협업주체와 실행의지가 분명한 지역의 현안 의제 13개를 실행의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실행의제는 △광주사회적가치 연결의 날(매칭데이) △재생에너지 100%(RE100) 탄소중립 규제에 대한 지역 기업의 대응모델 구축과 확산 △쪽방촌 긴급지원·자활 프로젝트 △사회적 처방 지원을 통한 시민건강정책 혁신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학 등 참여기관이 77개로 대폭 확대된 것은 시선의 다양성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워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하는 협의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욱 폭넓은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변화의 주체이자 원동력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기자

도계~장성 국지도 확포장공사 개통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27일 장성 북이면 방장산터널 시점에서 도계~장성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개통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날 개통 구간(5.97㎞, 2차로)은 전북 고창군·읍 석정리~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까지다. 전남도 제공

광주 남·북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수행 지자체로 남구와 북구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6월 서구를 시작으로 현재 광산구 등 2개 지자체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남구와 북구에서도 사업을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한 달 이상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돕는다.

특히 의료급여관리사, 협력의료기관 케어팀이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남구·북구가 선정됨에 따라 업무 절차, 시스템 운영 방법 교육, 서구·광산구 수범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김성수 기자

광주시 '광역 평생학습 도시' 선포… 내일부터 정책포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29~30일 2023 평생학습 정책포럼과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와 함께 협력·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광주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협력과 도약, 평생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29일에는 '대전환의 중심, 광역평생학습도시의 출범-광주를 시작으로'라는 주제로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식과 정책포럼을 진행한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5개 자치구 모두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를 통해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한다. 모든 시민의 삶이 학습과 하나가 되는 '광역 평생학습도시 광주' 선포식에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비전큐브 퍼포먼스와 선언문 낭독을 한다.

오는 30일에는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김성수 기자

전남도 '골프 중심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천혜의 자연 조건 활용
수요 맞춤형 건설 추진

전남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겨울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골프 스포츠 중심지 조성을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총 514곳에 전남에는 39곳이 운영 중이다.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 맞춤형 골프장 건설과 실질적 골프 대중화, 지역 주민과 사업 시행자 갈등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와 인·허가권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조직(TF) 구성·운영'부터 행정절차 개선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또 주민·시행자·허가권자 간 협의체 구성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타 지역 방문객 유치를 위한 이용요금 인하 등을 중점 추진한다. 현재 전남에서 신규로 건설을 추진 중인 골프장은 총 13곳이다.

이 중 4곳은 투자자가 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이며, 9곳은 도와 시·군에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골프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6조원으로 스포츠산업(80조) 중 단일종목 최대인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4.7%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접근성이 향상돼 엠지(MZ)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골프 인구는 2021년 474만여명에서 2026년에는 600만여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최근 골프 입문자가 늘면서 명실상부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수요 맞춤형 골프장을 조기에 건설해 골프장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총력

내달 12일 모의훈련 실시

전남도가 양식 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적조·고수온이 올해는 한 달 빨리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총력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최근 '2023년 적조·고수온 대응 종합대책'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야별 전략은 '예방 중심적 대응체계 확립', '예찰·예보 기반시설 확충', '민·관 합동 현장 대응', '피해복구·경영 안정 지원', '제도개선·기술보급' 등이다.

지난 26일엔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적조·고수온 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지원 방제장비 구축, 예찰·예보 기반시설 확충, 민·관 합동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오는 7월12일에는 완도 신지면 해상가두리 양식장 밀집해역에서 적조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에는 완도군·해양경찰·어업인 등이 선박 26척을 동원해 참여하며 실전 대응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은 올해는 평년 대비 수온이 0.5~1도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에 따라 고수온은 7월 초순, 적조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7월 하순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하는 등 양식 어업인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조·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자기어장 지키기 운동'과 적조 발생 시 광역적 일제 방제작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에선 지난해 8월26일 여수 돌산도~고흥 외나로도 해역에 적조주의보 발령에 이어 30일에는 경보로 강화돼 피해 발생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인력 435명, 장비 329대를 동원해 여수~완도 해역에 황토 1964톤을 살포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적조로 인한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황지 기자